

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팀 운영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7월 20일(일)을 기점으로 7.16.~20. 집중호우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복구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,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‘가전제품 무상수리팀’을 운영한다.
- ‘가전제품 무상수리팀’은 행정안전부와 가전 2사(삼성전자, LG전자) 간 맺은 업무협약(‘21.7월)에 따라, 피해 주민에게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지원하고 있다.
- 행정안전부와 가전 2사는 지자체 요청 시 무상수리팀 운영 여부를 판단하고, 소규모 피해지역은 방문 서비스, 대규모 피해지역은 현장에 통합 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.
- 무상수리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,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며,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생산한 가전제품 전 품목이 수리 대상에 해당된다.
 - ※ 공휴일 및 우천 시 미운영 될 수 있으며,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수리(부품료 50~100%) 진행
-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무상수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.

〈 가전2사 대표번호 〉

SAMSUNG

1588-3366,

**LG전자**

1544-7777

- 현재 호우 피해가 컸던 일부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무상수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, 지자체 요청에 따라 운영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- 아울러,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무상수리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안내해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.
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이번 무상수리 서비스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며,
- “정부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가용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종빈 (044-205-5310)
		담당자	서기관	강진모 (044-205-5314)



참 고

무상수리 운영 사진



LG전자



삼성전자